
2020년 제20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5. 8. ~ 5. 1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5. 8.	시청률	0.116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 '단박톡'은 "'코로나 격리설'부터 '식물 인간설'까지 행방 묘연한 김정은 위원장, 급변하는 북한 상황과 대처는?"을 다뤘고, '북마크TV'는 "코로나19와 대북 제재 속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북한 관광지는?"에 대해 알아보았다.

단박톡은 김정은 위원장의 잠적 20일간의 기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다루어 매우 흥미로웠다. 크게 잠적의 배경과 복귀 후 행보를 주로 다루었고 후반에는 2온갖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북마크 TV는 코로나19 상황 속 북한의 관광이라는 주제로 양덕온천지구를 소개했다.

'단박톡'에 초대된 이영종 북한전문기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런 잠적과 복귀 관련 가짜뉴스, 전문가도 속게 만든 흥미위주의 교묘한 북한 가짜뉴스 확산 문제, 언론의 잘못된 북한 관련 보도 행태, 유튜버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민심과 국가 경제를 혼란시키는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구성 및 내용】

단박톡은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장면을 주로 다루면서 세간에도 소문으로 무성한 김 위원장의 달라진 외모를 지적하는 부분이 많아 공감이 많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담배나, 체중, 붓기, 오른 팔의 반점과 걸음걸이, 카트 이용 등 매우 디테일하게 지적해서 설득력이 있었다. 김 위원장의 잠적을 두고 '코로나19 발병' 혹은 원산체류설 등으로 소문이 퍼진 이유도 충분히 밝혀주어 설득력이 있었다. 또, 순천인비료공장에서 복귀한 것에 대한 숨겨진 의미, 그리고 복귀 시점에 관한 김 위원장의 의도 등을 알려주었다. 또한 사태가 이렇게 커진 이유로 지난 태양절 불참을 계속 언급했는데 여기서 화를 내는 김위원장의 모습을 집중 조명해 참신했고 중국 의료진 파견 배경도 다른 매체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라 매우 흥미로웠다.

이영종 북한전문기자는 '한 가지 출처만 믿고 보도한 기사는 쓰레기'라고 단호하게 우리 언론의 잘못된 방향을 지적했고 이어 김영훈 진행자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짜뉴스가 가장 큰 전염병'이라고 덧붙여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처럼 북한 관련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북한의 폐쇄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우리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행태에 일침을 가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북마크TV "北, 코로나19 상황 속 강조하는 관광은?"에서는 올해 1월 평안남도 양덕에 최대 최신식 온천장을 개장 소식으로 북한 조선중앙TV의 관광특구 뉴스를 편집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여가 생활을 볼 수 있어서 신선했다. 특히,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양덕온천지구, 온천탕물에 달걀을 삶아 먹는 모습, 한밤중에도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북한만의 독특한 대중탕 모습이 흥미로웠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5. 9.	시청률	0.015

【총 평】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를 표방하는 <밥보다 법>은 최근 분쟁이 잦은 상가임대차 문제를 다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방송해 분쟁의 원인과 문제점, 임차인이 보호받는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최근 코로나19사태 여파로 상가임대차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수용자 니즈와 시의성에도 적합했다.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법적 해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 유용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서였다.

【구성 및 내용】

밥보다 법은 상가임대차 분쟁을 피하는 법에 대해 건물주와 세입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가운영과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최근 몇 년 간 굵직한 상가임대차 분쟁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만큼 중요한 이슈였다.

밥법드라마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상가를 잘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이 스스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법률다락방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반으로 임대료 인상범위와 계약기간, 퇴거요구, 계약갱신 요구, 재계약 등 임대차에 있어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전해주었다. 밥상머리 차트에서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권리금, 계약금, 임대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임차인들이 자주 곤란을 겪게 되는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를 환산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과 연계해서 설명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지난 4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표준권리금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상권이 갑자기 커나가면서 생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임대, 임차할 경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취지의 법률로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영업권 등을 보호하는 권리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임대료 인상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1년에 5%까지 인상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대항력 등 중요한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또한 보증금을 정할 때 최우선 변제권 범위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도 못한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받으면 불합리하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해 주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한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건물을 훼손하거나 임차인인 월세를 연체하는 것 등이다.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5. 9.	시청률	0.002

【총 평】

풍류의 고장이자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충북 괴산의 풍경을 소개했다. “걸음마다 이야기가, 충북 괴산”는 괴산군민의 따뜻함과 굽이굽이 펼쳐진 풍광이 아름답게 잘 드러났다. 충북 괴산의 산막이 옛길은 ‘아름다운 우리 강 탐방로’로 선정된 곳으로서 풍광이 무척 아름다운 곳이다. 또한 삼종을 지낸 노수신이 유배생활을 하던 수월정과 ‘밀가루와 계란 옷을 입힌’ 올갱이를 된장국에 풀어낸 토속 음식은 독특해서 시선을 끌었다.

특히, 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의 애환을 간직한 채 오지마을로 옮겨온 수월정, 사은리 산막이 옛길, 얇은뱅이 약수터, 도정리 소재 느티나무, 63년 역사의 청인약국, 양조장과 막걸리 배달 기사들의 추억 등을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충북 괴산의 멋진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졌다. 괴산의 괴는 느티나무 괴(槐)자로 느티나무가 많은 곳으로 충주지형은 한반도 전망대 모습을 닮았다. 1957년 괴산댐이 준공되면서 생겨난 산막이 옛길의 정취와 풍경은 괴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오솔길로 유명한 곳이다. 산막이 옛길에 얹힌 이야기와 당시 오지마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잠시 엿볼 수 있었고 마을 주민을 만나 댐 수몰 이전의 풍경을 들었다. 괴산의 산막이 옛길에서 시작해 수월정에 얹힌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삼종을 지낸 노수신이 유배생활을 하던 수월정은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과 장소인지라, 호기심을 자극했다.

칠성면 도정리를 지키며 괴산의 역사와 함께한 양철 지붕의 청인 약방은 잊혀진 옛날 약품으로 옛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지나온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소박하고 정겨움을 돌아나게 하는 시간이었다. 나무로 만든 미달이 약방문에 약국 내 풍경 자체가 옛 정취를 그대로 담아, 눈길을 끌었다. 약방에 머무는 동안에 손님이 꽤 많이 찾아와 시끌벅적한 분위기속에 집까지 동행해 옛날 추억의 노트를 보면서 약방에 얹힌 추억, 이 웃간의 정이 부각되었다.

개천에서 올갱이 줍는 남성과 만나 자연스럽게 그 남성의 아내가 운영하는 올갱이 전문점으로 향해 올갱이국을 끓여 먹으며, 충청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괴산은 넓고 맑은 하천이 발달해서 올갱이를 많이 주울 수 있었다고 한다. 올갱이국은 충북지역에서 많이 만들어 먹고 식당에서도 팔고 있는데 올갱이국을 끓이는 과정을 보여주어 맛있는 냄새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막걸리 양조장에서는 제조 과정과 옛날 추억을 짧게 소개하고 술빵을 먹으면서 마무리했는데, 직접 술을 담는 장면은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특히, 제철 자연산 먹거리와 독특한 토속메뉴 소개가 많았다. 다래순 무침, 올갱이 된장국, 제철 두릅이 나왔고 특히 ‘밀가루와 계란 옷을 입힌’ 올갱이를 된장국에 풀어낸 토속 음식은 독특해서 시선을 끌었다.

프로그램	KTV 특집 '영상백서, 코로나19의 기록'		
방송일자	2020. 5. 10.	시청률	0.041

【총 평】

전 세계를 강타해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외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긴박했던 코로나19를 영상백서 형식으로 정리해 방송한 의미가 컸다. 코로나19 극복 기록 구성으로 민족적 자긍심, 국민 일체감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국민방송 KTV의 정체성을 제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을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위기 대응,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한 기록을 남겨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차후 감염병 비상에 대비한 매뉴얼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위기상황을 안정국면으로 이끈 정부의 역할과 정책알림이 기능을 조명했고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를 이끈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돼 현장성과 설득력을 높였고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지난 1월 20일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기록과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 치열하게 대응했던 정부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잘 담아냈다. 특히 코로나 19가 안정기로 접어든 것은 전 국민의 희망, 헌신 그리고 열정의 결과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것도 특징적이었다.

'영상백서, 코로나19의 기록'은 국내 코로나19의 첫 발생부터 상대적으로 안정기로 들어선 현재까지 정부와 시민들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두루 다뤘다. 초기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이후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 방역당국의 대응,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저력, 신규 확진자 증가세의 둔화 효과, 코로나19 발 경제적 충격과 정부의 대응정책 등이 다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을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위기 대응,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한 기록을 남겨 자긍심과 함께 국민통합의 정신을 고양했다. 또한, 병상부족, 마스크 부족, 개학연기 상황을 국군병원 활용,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온라인 개학 등으로 풀어나간 솔루션이 매뉴얼로 제시됐다. 특히, 초기 대응을 비롯해 31번 확진자 발생으로 상황 급변, 위기 상황과 긴급 대처, 경제 충격과 비상조치 가동, 안정화 국면 등 긴박한 상황이 일지별로 잘 정리돼 '기록성' 가치도 상당하다. 영상백서답게 관련 영상이 충분히 뒷받침돼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줘 시각적 몰입도를 높이고 다큐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의료진의 자발적인 헌신, 정부의 단계별 방역 대응 조치, 마스크 대란에 협조한 시민의식 등을 분야별로 점검해 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을 분석한 점이 돋보였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경제회의 가동 동향을 제시해 정부의 역할과 정책알림이 기능을 조명한 부분도 긍정적이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5. 10.	시청률	0.130

【총 평】

귀농다큐 살어리랏다는 28년 째 버섯만을 연구하는 한국목이버섯 선구자의 28년 차 귀농 이야기 “목이버섯 박사의 외길인생”편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버섯 연구에 인생을 쏟은 주인공의 목이버섯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었고, 자만보다는 겸손을, 집념과 자부심, 인내와 장인 정신까지 엿볼 수 있었다.

오랫동안 목이 버섯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주인공 덕분에 왜 경기도 화성시가 버섯 농사 짓기에 적합한 지역인지, 목이버섯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지, 목이버섯 생육을 위한 기계 설비 개발 연구가 왜 필요한지 등 버섯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주인공이 지닌 오랜 노하우와 열정, 그리고 창의적인 개발 의욕과 후학 양성, 새내기 귀농인들을 통해서도 소통하며 배우려는 자세 등은 귀농인들과 귀농 프로그램의 좋은 사례가 된 방송이었다.

【구성 및 내용】

주인공은 귀농 28년차로 20년째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라 유난히 배울 점이 많았다. 참나무 재배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된 목이버섯을 대중화하기 위해 멘토링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전했다. 명문대 미생물학과 출신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버섯 재배에 뛰어든 것이어서 그가 소개하는 정보와 노하우에 더욱 신뢰가 갔다.

특히, 연구실에서 종균을 배양하는 과정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성공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자신의 성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원하는 다른 귀농인들을 돕는 것에도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인격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부분이 많았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들었다. 버섯재배를 시작한 교육생들의 버섯농장을 방문하여 버섯이 성공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특히,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소신에 전문성을 더해 많은 정보와 교훈을 주었다. 버섯이라는 작물의 재배법이 흔하게 알려진 편이 아니라 하나하나 설명할 때도 상당히 흥미로웠고 배지 제조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가로서의 진지한 태도도 많은 교훈을 주었다.

또한, 버섯을 수확하고 포장하고 납품하는 전 과정이 꽤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로컬푸드 매장까지 직접 들러 자신의 작물과 다른 실습생들의 작물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전문가서의 모습이 배울 점이 많았다. 버섯박사 아버지와 이제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로부터 버섯에 관한 밑바닥부터 배우는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진 화면이었다. 최고에 오르기까지 역경과 인내를 잘 참고 이겨내 온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열정과 노력이 조화를 이루었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방송일자	2020. 5. 11.	시청률	0.060

【총 평】

<생방송 대한민국>이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구성방식을 시도하며,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 소식과 재난지원금,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등의 주요뉴스를 정리하고 각 부처의 이슈 및 새로운 정책에 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전했다.

문대통령 취임3주년 기념 대국민특별연설에서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용어가 제시되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요약 정리해 주었다. 또, 문대통령의 취임3주년 특별 대화와 관련한 주요 성과를 전달했다. 진행자의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국민 개개인의 책임과 의무에 관해 부모님의 마음을 빚댄 뉴스 마무리가 신선했다.

【구성 및 내용】

이태원 클럽발 감염확산...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이번 주는 '요일제' 적용, 취임 3주년 특별연설..."세계 선도하는 국가 목표", 한중 '신속통로' 출범..."경제 정상화 첫걸음", 정부, 미국에 마스크 200만장 긴급 지원,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구속영장 신청 등 주요뉴스를 정리했다.

특히,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가짜뉴스를 바로 잡는 기능이 강화된 점 좋았다. '사실을 빠르고 간단히 전달할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진단할 내용'을 구분한 점도 체계적이었다.

서울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로 다룬 주제는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외교·안보 정책 성과와 과제는?"이었다. 특히, 남북관계와 북미 협상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4강 외교 복원, 외교 다변화로 신남방정책추진, 한국 방역모델 세계적 발판 마련 등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짚어주었다.

문대통령 취임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국제사회 속 우리나라 위상 변화,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난·질병·환경문제를 '인간안보'로 국제협력 선도하겠다는 의지와 원칙이 갖고 있는 의미, 남북 생명공동체 구상 발전 내용과 과제 등을 전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재난, 질병, 환경문제, 난민, 사이버 테러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것에 대해 "인간안보"로 안보 확장 개념을 시사하였는데, 삶의 질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는 소식과 코로나19의 어려움속에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할 것 등을 전하였다.

<월드투데이>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인한 현재 동향 소식을 전달했는데, 재유행에 대한 부분을 빼놓지 않고 전해 상당히 공감이 갔다.

【참고사항】

24:50 '전쟁위기 털어낸 3년...남북관계 진전으로 북미대화 추동 시도' 자막에서 '추동'이란 표현보다 보편적인 단어를 선택해야 쉽고 친근한 뉴스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5. 12.	시청률	0.065

【총 평】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고, 지난 10일에는 취임 3주년 대국민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2년의 국정운영 목표가 제시됐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당면과제가 경제라는 점에서 <특특 사이다경제>는 '문재인 정부 3년, 경제성과와 과제는?' 계기성과 시의성을 살린 적절한 기획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3년의 경제정책의 성과를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해 쉽게 와 닿았고,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대외경제 여건을 과제로 들면서 신 북방과 신 남방 정책을 돌파구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한다는 점을 제시한 점도 의미 있었다.

【구성 및 내용】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3대 축을 기반으로 하여 고용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했고 가계소득 증가율에서도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받았다.

<특특 사이다경제>는 지난 3년간의 경제 성과와 향후 2년의 과제 및 주요 추진 정책들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 문재인 정부 3년 경제 성적은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3대 축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등 고용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율은 3.3%로 최근 7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며 9분기 연속 증가하였다.

■ 경제 분야의 5개년 계획

일자리와 중소기업 성장, 4차 산업 혁명, 갑질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또한 복지차원의 포용경제,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안심사회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두 축으로 계획되었다.

■ 일자리 정책 성과와 과제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다만 3월에는 20만 명 정도의 취업자 감소 있었지만 최근 3월의 고용률 감소는 코로나19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돌파구 모색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는 기존 미중 일변도 경제 흐름이 다극화로 확대될 것이고, 미국 대선, 미중 경쟁 등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코로나19로 통상환경의 변화속에 패러다임의 극복을 위한 신남방정책이나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KTV 특집 코로나19, 무엇을 남겼나?		
방송일자	2020. 5. 14.	시청률	0.065

【총 평】

‘코로나19 무엇을 남겼나?’는 전고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이때, 코로나19 모범국가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K브랜드가 세계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요약 설명한 방송이었다. 지난 3개월간 정부·민간·의료기관·국민이 겪은 코로나19 극복 여정과 국내외 반응을 그려냈다.

‘코로나19 무엇을 남겼나?’는 전반적으로 심각하기보다는 밝고 긍정적으로 연출되었고 후반에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해져 좋았다. 특히,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 확산 등 시의성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한 흔적을 보여준 제작진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무엇을 남겼나?’는 지난 3개월간 정부·민간·의료기관·국민이 겪은 코로나19 극복 여정과 국내외 반응을 60분 동안 그려냈다. 코로나19가 남긴 교훈, 앞으로 남은 과제 등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은 위기의 나라에서 방역 모범국가로 거듭난 한국과 한국인이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희망과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 외국인들이 본 K방역 실태

터키, 캐나다 등 실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터뷰로 자국과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비교했고 이어 외국인 교수가 등장해서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터키인이 야무르에쨌씨가 자국 방송사에 리포트한 코로나19 방역 시스템과 대처 상황, 캐나다인 유튜브 아만다씨가 올린 한국방역 체험, 코로나19 검사 경험자 호주인 챔버씨 시각에서 본 진단검사 접근성, 대량검사, 신속성, 드라이버 스루 등이다.

■ K방역의 우수성과 비대면 일상

국산 진단키트와 워킹 스루,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그 우수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또, 개학이 연기되어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평범한 주부부터 재택근무가 자리 잡은 모 업체의 모습을 주로 다루었다.

■ 나눔의 손길

의료진을 위해 도시락 봉사를 하는 봉사단체와 사정이 어려운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할인해준 착한 임대인의 이야기 등 따뜻한 연대의식을 전했다.

■ 코로나19와 연관된 가짜뉴스의 실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 틈을 타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 실태를 정확하게 짚어주었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